

# 안정성,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과 분배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군석<sup>†</sup> · 한덕웅

한림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사회정체성이론과 아울러 이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대박탈이론에 따라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경험하는 집단상대박탈의 경험과 분배행동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범주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정체성과 낮은 지위의 안정성 및 합법성이 집단간 관계에서 집단상대박탈 경험과 내집단 편애의 분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동일한 사회범주를 사용하여 사회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조건과 아울러 내집단의 낮은 지위가 결정된 과정이 비합법적인 조건에서 집단상대박탈의 경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였는데,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만 낮은 내집단 지위의 안정성이 높으면서 합법성은 낮은 조건에서 집단상대박탈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편 사회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조건과 아울러 내집단의 낮은 현재 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낮은 조건에서 내집단의 몫으로 분배한 양이 더 많아서 내집단 편애를 보였다. 또한 삼원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만 낮은 내집단 지위의 안정성이 합법성이 낮은 조건에서 내집단편애가 심한 방향으로 분배하는 양이 많았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요한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집단간 관계의 설명 수준에서 저지위 집단이 경험하는 집단상대박탈 경험 및 집단간 분배행동을 사회구조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알아본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사회정체성이론, 상대박탈이론, 사회구조 요인, 내집단 편애, 합법성, 안정성**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경험하는 상대박탈이나 집단간 분배행동은 사회상황에서 집단간 관계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 이론에서는 중요한 사회구조 요인들로서 사회상황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상대적 지위, 장차 집단간 지위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안정성, 그리고 집단간 지위가 형성된 과정의 정당성 지각을 의미하는 합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Tajfel의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거시적 사회구조의 측면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Folger(1987)의 준거인지이론(referent cognition theory)에서 사용하는 정당성이라는 용어보다 합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과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에 따라서

\* 이 논문은 박군석(2002)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교신저자 : 박군석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cavinpks@hallym.ac.kr)

집단상대박탈 경험이 나타나고 이 집단상대박탈 수준과 일관되게 내집단 편애의 방향으로 분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박군석과 한덕웅(2002, 2003a)의 조사연구에서는 영남과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간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에 따라서 집단상대박탈 지각과 집합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바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집단상대박탈은 세 단면들로 구성되었다고 개념화하였다. 이 가운데 집단상대박탈인지는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이 성취한 결과와 외집단이 획득한 결과의 차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이뤄지는 지각을 의미한다. 집단상대박탈감정은 지각된 차이가 지니는 가치 및 정서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단행동의도박탈은 결과의 상대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자들이 개발한 집단상대박탈 척도는 집단상대박탈을 구성하는 세 단면별로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집단박탈을 총점으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3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부합도(GFI=0.90, AGFI=0.87)가 높도록 제작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들을 보면 안정성 요인은 집단상대박탈의 세 단면들 가운데 행동의도박탈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합법성 요인은 집단상대박탈의 세 단면들 중 박탈인지나 박탈감정과 달리 행동의도박탈에서 약한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정체성 요인은 집단상대박탈을 구성하는 세 단면들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들에서 사회구조 요인들이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 안정성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바와 달리 합법성 요인은 내집단지원 및 집단간 행동전략들을 잘 설명하였다. 또한 박군석과 한덕웅(2003b)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70%가 소속 집단의 지위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호남사람들의 자료와 조사 대상의 82%가 소속 집단의 지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영남사람들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달랐다. 특히 저지위 집단에 해당하는 호남사람들의 경우에는 집단의 지위와 합법성 요인에 따라서 집단상대박탈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집합전략 중 집단간 경쟁행동에서는 안정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상관연구로서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사회구조 요인들이 상대박탈이나 집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중요한 가설들을 반복 검증하려고 한다.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구조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이나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실증연구들을 보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Operario & Fiske, 2000). 특히, 지위나 합법성 요인과 달리 안정성 요인의 영향에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소속한 집단이 낮은 지위에 처한 조건에서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다룬 연구들(박군석·한덕웅, 2003b; Ellemers, Spears, & Doosje, 1997; Mummendey, Mielke, Wenzel, & Kanning, 1996 등 동독인 대상의 연구)과 일관되게 집단상대박탈을 경험하는 지위가 낮은 조건으로 국한하여 중요한 가설들을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중요한 가설들이 도출된 이론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이 소속한 집단의 범주가 특출해지면 사회범주화에 따른 효과로 개인의 사회정체성이 높아져서 자기를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집단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동조 경향이 높아진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자신을 내집단 일원으로 보게 되면 집단간 관계를 형성하여 집단 중심으로 사회상황을 보게 되므로 사회정체성이 높아져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개인의 지위가 낮은 조건보다 집단상대박탈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소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지위가 낮은 집단간 관계가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집단간 관계가 현재와 다른 지위 관계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불안정한 집단간 관계라고 지각하면 내집단의 지위가 높아져서 현재와 다른 지위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Tajfel & Turner, 1979; Ellemers, 1993). 따라서 현재 지위가 낮더라도 집단간 관계의 안정성이 낮아서 집단간 관계가 앞으로 내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상대박탈로 경험하는 분노 감정의 표현은 낮아질 수 있다(Folger, 1987). 이와 달리 집단간 지위 관계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가능성이 없는 안정조건에서는 변화가능성이 있는 불안정 조건에 비하여 내집단의 지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집단상대박탈 수준이 높다고 예상된다.

한편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현재 집단간 관계가 형성된 과정이 합법성을 지닌다고 보는지가 상대박탈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집단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 배경으로 비합법성 요인이 작용했다고 인식하면 집단상대박탈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집단행동들은 내집단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유발되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 이른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수준에서 항의나 경쟁행동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리를 종합해 보면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사회정체성, 집단간 지위 관계의 안정성, 그리고 지위가 결정된 과정의 합법성이라는 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효과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지만 사회정체성이 높으면서 내집단 지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아서 안정성이 높고, 또한 합법성도 낮으면 이 조건에서 집단상대박탈을 경험하는 수준이 다른 조건들보다 높을 것이다. 또한 이 조건에서 집단상대박탈뿐만 아니라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유리하게 보상을 분배하여 내집단 편애를 보이는 수준 역시 가장 높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조건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높아서 개인보다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규범에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조건이며,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집단간 관계에서 변화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낮은 지위에 이르게 된 과정도 비합법적이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를 내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내집단에 관한 긍정적 정체성을 확보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이기 때문에 집단상대박탈은 매우 높으며 집단간 경쟁전략을 사용하여 내집단 편애의 집단간 분배를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과 달리 사회정체성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는 자기 지각의 초점이 집단으로부터 개인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집단간 지위관계에서 인식된 합법성과 안정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상대박탈의 경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제안한다.

#### 가설 1) 집단상대박탈에 대한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집단간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이 높으면서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합법성의 수준에 따라서 집단상대박탈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사회정체성이 높은 안정조건에서는 합법조건보다 비합법조건에서 집단상대박탈 경험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안정성과 합법성에 따라서 집단상대박탈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회정체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한다는 내집단편애 현상을 보고했다(Oakes & Turner, 1980; Tajfel, 1978; Tajfel, 1981; 국내 연구로는 김금미·한덕웅, 2002a,

2002b).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단지 개인이나 내집단의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내집단에 속한 개인의 자기상을 고양시키려는 목표와 일치한다. 이 이론을 보면 내집단편애 행동의 방향은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예언하는 집단상대박탈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인들의 영향으로 내집단의 상대박탈 경험이 높을수록 집단간 보상의 분배 상황에서 내집단을 편애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분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간 관계에서 내외집단 보상의 분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제안한다.

가설 2) 내집단편애의 분배행동에 대한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사회정체성이 높으면서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합법성에 따라서 내집단편애의 분배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사회정체성이 높은 안정조건에서는 합법조건보다 비합법조건에서 내집단편애의 분배행동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안정성과 합법성에 따라서 내집단편애의 분배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방 법

**참가자:** 8개 실험 조건에 대학생 14명씩 무선할당하여 총 112명(남자 63명, 여자 49명)으로부터 종속변인으로 상대박탈과 분배행동을 측정하는 반응을 얻었다. 참가자는 S 대학교의 48명과 J 대학교의 64명으로서 동성으로 구성된 2명이 1개조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절 차:** 실험에서 독립변인들을 조작한 절차를 보면 1)사회정체성 조작, 2)합법성 조작, 3)안정성 조작, 4)지위 조작 및 5)종속측정치 측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2명의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컴퓨터 앞에 앉도록 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단순집단범주화의 기법으로 사회정체성을 조작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점추정과제(이화영, 2001)를 5회 실시하였다. 각자가 점추정과제에서 얻은 수행의 결과를 근거로 개인의 지각유형을 구분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개인이 P 유형인지 Q 유형인지를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연구에 현재 참여하는 사람들 중 자신이 P유형의 2명 중 한 명이라고 알려주고 P집단의 고유번호도 부여하였다(예, P001). 이어서 연습과제로서 두 숫자 중 첫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두 수를 곱하고 짝수이면 더하는 ‘변별연산과제’(이희인, 1999)의 해결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3분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한 점추정과제의 수행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두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P 유형 또는 Q 유형은 각각 두 명씩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는 매 회기마다 2명이 1개조를 이루어 실험이 실시되었지만, 피험자들에게는 다른 방에 두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이 동시에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였다.

이어서 합법성을 조작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이나 집단이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규칙을 설명하였다: (1)정답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정답수 우선규칙’, (2)오답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오답수 우선규칙’, 그리고 앞에서 연습과제의 수행에서 얻은 개인별 득점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규칙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하나씩 차례대로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평가규칙

에 따라서 보상획득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화면에 ‘정답수 우선규칙’이 적용될 경우 ①본인은 2등 이내에 확실하게 포함될 확률이 있는 결과, ②자신이 소속된 P 집단 중 두 명 모두 확실하게 2등 이내에 포함될 확률이 있는 결과, ③본인이 2등 이내에 포함될 확률이 모호한 결과의 세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제시하였다. 이후에 자기를 포함한 네 사람들 가운데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한 명이 본시행의 과제수행 결과를 합산하는 평가규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합법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외집단인 Q 집단의 성원들 중 한 명이 적용규칙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외집단 성원이 적용규칙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서로 달리 조작하여 합법성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다음 수행에서 채점의 규칙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는 조건으로 나뉘어서 안정성을 조작하였다. 그 후 본 시행을 5분간 실시하였는데, 이 실험에서는 모두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시행의 결과에서 순위가 낮아서 본인 또는 본인이 포함된 P집단 전체가 실험참여 점수 5점씩을 받을 수 없다고 조작하여 모두 지위가 낮은 조건으로 통일하였다. 이어서 독립변인들의 조작점검과 사회정체성, 상대박탈 그리고 종속추진치들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2차 후속시행을 하기 전에 실험제로는 연습시행을 다시 실시한 후 모든 실험 절차를 마쳤다.

**독립변인:** ①사회정체성: 낮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는 개인범주화를 이루도록 ‘당신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든 상관없이 개인별 수행점수로 볼 때 수행을 잘하여 점수가 높은 참여자 두 사람에게 각각 5점씩 제공된다’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는 사회범주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집단(P 집단 또는 Q 집단)별로 당신과 함께 당신이 소속된 집단의 다른 참여자도 함께 수행을 잘하여 외집단보다 소속 집단의 전체 점수가 높으면 당신이 속한 집단의 두 사람들이 모두 각자 5점씩 얻게 된다’는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두 명씩 실험에 참가한 사실은 개인범주화 조건도 동일하지만 사회범주화를 통해서 사회정체성을 조작한 조건에서는 보상의 획득에서 공동운명을 느끼도록 하였다.

②합법성: 합법성은 두 사람의 점수를 합산하는 규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험자의 지시를 지켜서 합법성이 확보되거나 지키지 않아서 합법성이 저해되는 두 조건으로 조작했다. 먼저 **합법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컴퓨터가 본시행에서 적용할 규칙을 결정할 사람을 무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작동하여 Q 집단의 001번 참여자가 수행의 합산규칙 선정자로 결정되는 모습을 화면에 모두 보여준 후, ‘실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산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키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가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잘 따라주었습니다’라는 소개문을 제시했다. 합법성이 낮은 **비합법 조건**에서는 수행의 합산규칙 선정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보여준 후, ‘실험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정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합산규칙을 선정할 권리를 제공받는 키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Q 집단의 참여자 중 한 명이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한 명이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소개문이 제시되었다.

③안정성: **안정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1차 시행과 2차 후속시행 모두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라는 문장을 소개문에 제시하였다.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조건**에서는 ‘우선 이 규칙은 1차 시행에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후속시행에서는 평가규칙을 선택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정한 결과에서 오답수 우선규칙이 적용될지 혹은 정답수 우선규칙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 집단상대박탈은 박군석과 한덕웅(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대박탈 척도(예;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를 실험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16개 문항(예; 내가 속한 집단은 다른 집단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이며, 신뢰도(Cronbach Alpha)는 .95이었다. 각 문항은 7점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내집단편애의 **분배행동**은 참여자가 문화상품권을 탈 수 있는 10장의 복권을 두 집단에 분배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양으로 내집단편애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 변인들을 독립변인들로 조작한 실험설계로는 2 (사회정체성: 고/저) × 2 (안정성: 안정/불안정) × 2 (합법성: 합법/비합법)의 완전무선설계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독립변인들의 조작효과 점검

①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군석(2002)에서 개발된 사회정체성 척도 문항들 중에서, 실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4개 문항(예; 내가 P집단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 $M=4.55, SD=0.83$ )의 참여자들이 낮은 사회정체성 조건( $M=4.01, SD=0.84$ )보다 사회정체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t_{(110)}=3.41, p < .01$ ).

②합법성: 합법성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법성 지각을 묻는 5개 문항(예; 내가 소속한 집단보다 다른 집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합법 조건( $M=3.75, SD=1.12$ )의 참여자들이 비합법 조건( $M=3.20, SD=1.01$ )보다 유의하게 더 합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t_{(110)}=2.74, p < .01$ ).

③안정성: 안정성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정성 지각을 묻는 4개 문항(예; 2차 후속시행 후 현재의 우리 집단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안정 조건( $M=3.80, SD=1.59$ )의 참여자들이 불안정 조건( $M=2.99, SD=0.83$ )보다 유의하게 더 안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t_{(110)}=3.36, p < .01$ ).

###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이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

집단상대박탈 경험의 수준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사회정체성: 저/고) × 2(안정성: 안정/불안정) × 2(합법성: 합법/비합법)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집단상대박탈 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그리고 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독립변인에 따른 주효과들을 살펴보면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 $M=3.53, SD=1.34$ )에서 낮은 사회정체성 조건( $M=3.06, SD=0.99$ )보다 집단상대박탈 경험 수준이 더 높았으며( $F(1,104)=5.51, p < .05$ ), 비합법조건( $M=3.66, SD=1.11$ )이 합법조건( $M=2.93, SD=1.18$ )보다 집단상대박탈 경험 수준이 더 높았다( $F(1,104)=13.60, p < .01$ ). 그러나 안정조건( $M=3.27, SD=1.41$ )과 불안정조건( $M=3.32, SD=0.95$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앞의 두 독립변인에 따른 주효과 및 2원 이상의 상호작용

용들이 유의하였으므로 뒤에서 제한된 해석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1. 각 조건별 집단상대박탈의 평균(표준편차)

	불안정			안정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사회 정체성 저	3.47 (0.56)	3.19 (1.10)	3.33 (0.87)	3.04 (0.87)	2.54 (1.16)	2.79 (1.04)	3.25 (0.76)	2.87 (1.16)	3.06 (0.99)
사회 정체성 고	3.40 (0.77)	3.22 (1.28)	3.31 (1.04)	4.74 (1.33)	2.75 (1.14)	3.75 (1.58)	4.07 (1.26)	2.99 (1.22)	3.53 (1.34)
전체	3.44 (0.66)	3.21 (1.17)	3.32 (0.95)	3.89 (1.40)	2.65 (1.14)	3.27 (1.41)	3.66 (1.11)	2.93 (1.18)	3.29 (1.20)

표 2.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이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효과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도
사회정체성(A)	1	6.152	6.152	5.51	.020
안정성(B)	1	0.078	0.078	0.07	.791
합법성(C)	1	15.192	15.192	13.60	.001
A × B	1	6.738	6.738	6.03	.015
A × C	1	3.385	3.385	3.03	.084
B × C	1	7.125	7.125	6.38	.013
A × B × C	1	4.464	4.464	4.00	.048

사회정체성(A), 안정성(B), 및 합법성(C)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F(1,104)=4.00$ ),  $p < .05$ )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 1로 제시하고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는 안정성(B)과 합법성(C)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 $F(1,104)=10.24$ ,  $p < .01$ ), 낮은 사회정체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 안정성(B)에 따른 합법조건과 비합법조건간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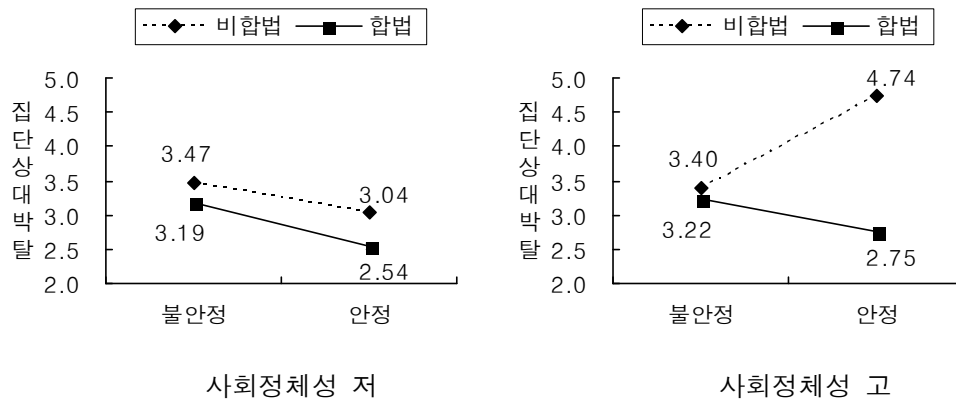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에 따른 집단상대박탈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표 3. 집단상대박탈에서 사회정체성에 따른 안정성과 합법성간 단순상호작용 효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안정성 × 합법성 at 사회정체성 저	1	0.1548	0.154	0.14	.710
안정성 × 합법성 at 사회정체성 고	1	11.4351	11.435	10.24	.001

표 4.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 안정성에 따른 합법성이 집단상대박탈에 미친 단순 주효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합법성 at 안정 at 사회정체성 고	1	27.667	27.667	20.88	.001
합법성 at 불안정 at 사회정체성 고	1	0.228	0.228	0.17	.679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정체성이 높으면서 안정된 조건에서는 비합법조건( $M=4.74, SD=1.33$ )에서 합법조건( $M=2.75, SD=1.14$ )보다 집단상대박탈을 경험한 수준이 높았으나( $F(1,104)=20.88, p < .01$ ),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으면서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비합법조건( $M=3.40, SD=0.77$ )과 합법조건( $M=3.22, SD=1.28$ )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이 내집단 분배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집단 분배행동으로 10장의 복권 가운데 내집단의 몫으로 분배한 양을 종속측정치로 얻어서 2(사회정체성: 고/저) × 2(안정성: 안정/불안정) × 2(합법성: 합법/비합법)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내집단 분배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그리고 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높은 사회정체성조건( $M=6.96, SD=2.05$ )에서 낮은 사회정체성조건( $M=6.05, SD=1.44$ )보다 내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양이 더 많았으며( $F(1,104)=8.26, p < .01$ ), 안정조건( $M=6.82, SD=1.76$ )에서 불안정조건( $M=6.20, SD=1.85$ )보다 내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수가 더 많았지만( $F(1,104)=12.55, p < .01$ ), 합법조건( $M=6.29, SD=1.85$ )과 비합법조건( $M=6.73, SD=1.79$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각 조건별 내집단 보상분배의 평균(표준편차)

	안정성 저			안정성 고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비합법	합법	전체
사회 정체성 저	5.71 (1.86)	6.21 (1.42)	5.96 (1.64)	6.50 (1.34)	5.79 (1.05)	6.14 (1.24)	6.11 (1.64)	6.00 (1.25)	6.05 (1.44)
사회 정체성 고	6.00 (0.96)	6.86 (2.71)	6.43 (2.04)	8.71 (1.20)	6.29 (1.82)	7.50 (1.95)	7.36 (1.75)	6.57 (2.28)	6.96 (2.05)
전체	5.86 (1.46)	6.54 (2.15)	6.20 (1.85)	7.61 (1.69)	6.04 (1.48)	6.82 (1.76)	6.73 (1.79)	6.29 (1.85)	6.51 (1.83)

표 6.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이 내집단 분배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도
사회정체성(A)	1	23.223	23.223	8.67	.004
안정성(B)	1	10.937	10.937	4.08	.045
합법성(C)	1	5.580	5.580	2.08	.151
A × B	1	5.580	5.580	2.08	.151
A × C	1	3.223	3.223	1.20	.275
B × C	1	35.437	35.437	13.23	.001
A × B × C	1	7.508	7.508	2.80	.097

내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수를 보면 사회정체성(A), 안정성(B), 합법성(C)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추세를 보이므로( $F(1,104)=2.80, p < .10$ )(그림 2 참조), 이에 대한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는 안정성(B)과 합법성(C)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F(1,104)=14.11, p < .001$ ), 낮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 안정성(B)에 따라서 합법조건과 비합법조건에서 내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수로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으면서 안정된 조건에서는 비합법조건( $M=8.71, SD=1.20$ )에서 합법조건( $M=6.29, SD=1.82$ )보다 내집단에 분배한 복권의 수가 많았으나( $F(1,104)=12.67, p < .01$ ),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으면서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비합법조건( $M=6.00, SD=2.04$ )과 합법조건( $M=6.86, SD=2.71$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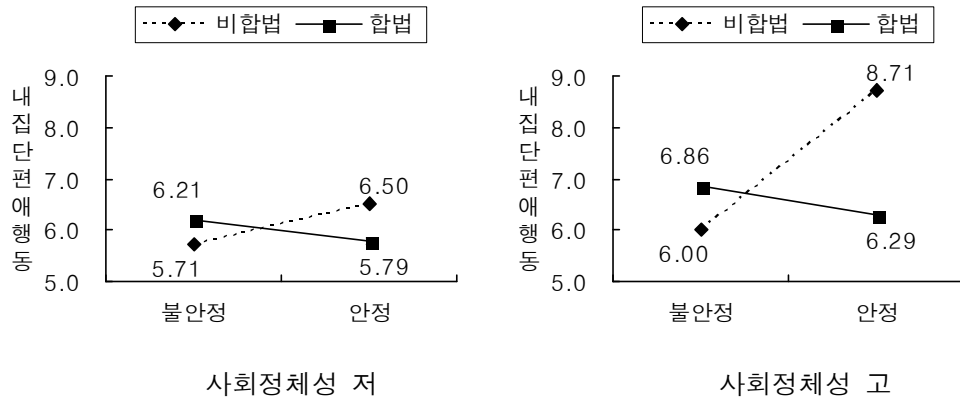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정체성, 안정성 및 합법성에 따른 내집단 분배행동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표 7. 내집단 분배행동에서 사회정체성에 따른 안정성과 합법성의 단순상호작용 효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안정성 × 합법성 at 사회정체성 저	1	5.160	5.160	1.93	.168
안정성 × 합법성 at 사회정체성 고	1	37.785	37.785	14.11	.001

표 8. 높은 사회정체성 조건에서 안정성에 따른 합법성이 내집단 분배행동에 미친 단순 주효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합법성 at 안정 at 사회정체성 고	1	41.285	41.285	12.67	.001
합법성 at 불안정 at 사회정체성 고	1	5.142	5.142	1.58	.214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내집단 지위가 낮은 조건으로 국한시키고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의 합법성, 지위의 안정성 및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 및 내집단에 대한 분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최소집단 방략을 사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필자들(2002, 2003a)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을 도입하여 영남과 호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조 요인들과 아울러 사회정체성이 지역 집단의 상대박탈과 집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안정성에 관련되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지위가 높은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집단박탈이 높았으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전라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위의 안정성 지각에 따라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상대박탈의 한 요소인 상대박탈 제거의도

에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얻은 연구의 결과들 가운데 지위가 낮은 내집단 조건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합법성과 안정성이 사회정체성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집단상대박탈과 집단간 분배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조사연구와 달리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검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가설대로 집단상대박탈에서는 안정성의 주효과를 제외하고 사회정체성과 합법성에 대한 주효과 및 세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가운데 내집단 분배행동에서는 사회구조 요인들 중 안정성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가 안정적이어서 장차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낮은 지위가 비합법적으로 조성되면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내집단에 대한 분배양( $M=7.61$ )이 가장 많아서 내집단편애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은 조건( $M=8.71$ )에서는 낮은 조건( $M=6.50$ )에 비하여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내집단에 대한 복권 분배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상대박탈에서 나타난 효과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내집단 분배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집단상대박탈을 측정된 결과의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안정성의 효과가 유의하였고, 합법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박군석과 한덕웅(2002, 2003a)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지위 조건만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박군석과 한덕웅, 2003b)에서 경상도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 전라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이 선행연구에서 집단상대박탈 중 박탈인지와 박탈감정에서는 안정성이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의 효과만 유의했다. 그리고 집단간 집합행동 전략에서는 합법성이 유의하지 않고 주로 안정성과 사회정체성의 효과가 유의하여 본 연구의 내집단 분배행동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로 유럽대륙에서 조사연구를 통해서 사회정체성이론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사회구조 요인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지적된 바 있다(Operario & Fiske, 2000).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장차 지역이나 성별을 포함해서 여러 유형의 집단간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이론에서 가정하는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이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 두 종속측정치 모두에서 안정성, 합법성 및 사회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집단상대박탈의 경험과 집단간 보상의 분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집단상대박탈에 따라서 집단간 분배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 가운데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보상을 배분한 행동에서는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추세만을 보였으므로 장래 연구에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구조 요인들 중 지위를 다루면서 낮은 지위로 한정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도 포함하여 지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권의 분배 이외 다른 여러 관점에서 내집단 편애를 정의하고 다양한 실제 행동측정치를 사용하여 사회구조요인들이나 집단상대박탈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금미·한덕웅(2002a). 집단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147-171.
- 김금미·한덕웅(2002b).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14.
- 박군석(2002).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 및 집합행동 : 영호남인의 지역간 갈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군석·한덕웅(2002). 영호남인의 상대박탈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2002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8-253.
- 박군석·한덕웅(2003a).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59-72.
- 박군석·한덕웅(2003b). 호남 사람들의 사회정체성, 상대박탈 및 집합전략. *한국심리학회 2003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1-402.
- 이화영(2001). 집단 구성원의 전형성, 지위위협 및 보상조건에 따른 수행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인(1999). 정체성 위협 조건에서 전형성이 집단 수행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e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Ellemer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66-778.
- Folger R. (1987). Reformulating the pre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 model. In J. C. Masters & W. P. Smith (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 (pp. 183-2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Breakwell G.M.(Ed.).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 Oakes P. J., & Turner J.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Operario D., & Fiske S. T.(2000). Integrat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 : A framework for bridging diverse perspectives. In D. Abrams & M. A. Hogg(Ed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pp.26-54). Blackwell Publishers.
- Tajfel H. (1978). The achievement of group differentiation. In H. Tajfel(Eds.),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pp.77-88). New York :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34-47). Monterey, CA: Brooks-Cole.

# Effects of Stability, Legitimacy and Social Identity on Relative Deprivation and Ingroup Favouritism

**Kun-Seok Park and Doug-Woong Hahn**

Hallym Institute for Aging Studies,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structural factors which were proposed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related relative deprivation theories through a laboratory experiment. The effects of stability of status, legitimacy of status and level of social identity on relative deprivation and ingroup favouritism in the reward allocation were testified in low ingroup status con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in both of the high social identification condition and illegal condition experienced higher level of group relative deprivation. In addition, participants in the high social identification condition and unstable condition also showed higher level of ingroup favoritism. Two three way interactions among level of social identity, stability and legitimacy upon both of relative deprivation and ingroup favoritism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most of the predictions proposed in this articl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both of the social structure variable and social identit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perience of the group relative deprivation and ingroup favoritism behavior.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relative deprivation theory, social structure factors, legitimacy, stability, ingroup favouritism**